

‘돌풍’ 페퍼스, 3연속 ‘셋아웃 행진’ 나선다



여자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외약체’ 꼬리표를 떼고 상위권 경쟁에 본격 시동을 건다.

현대건설(10월 30일)·흥국생명(11월 2일)을 연달아 셋아웃으로 꺾은 페퍼스는 6일 오후 7시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GS칼텍스를 불러들여 첫 3연승에 도전한다.

코보컵부터 맹활약하며 초반 흐름을 이끌고 있는 ‘새로운 에이스’ 박은서에 더해, 2일 흥국생명전에서 ‘외국인 공격수’ 조이가 16점을 보이며 성공적으로 V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여기에 ‘일본 국가대표’ 시마무라가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된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4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장식하고 있고, 박정아-이한비까지 국내진이 고르게 두 자릿수 득점을 내며 공격 루트가 다채로워졌다.

새 얼굴들의 활약으로 시너지 효과를 낸 페퍼스는 뒷심까지 더해 4경기에서 3승 1패(승점 8)로 리그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

페퍼스는 현대건설전에서 3-0(25-23 25-22 25-23) 완승을 거두며 ‘홈 강세’를 입증했고, 이어 원정길에서 만난 흥국생명도 3-0(25-19 25-18 25-19)으로 제압했다.

조이가 하이볼 처리와 후위 가담으로 버팀목이 되자 박정아-이한비가 측면에서 부담을 덜었고, 미들블로커 시마무라가 중앙 속공과 블로킹으로 흐름을 이어 붙였다. 고예림은 어깨 부상으로 컨디션이 완전히 올라오지 않았지만, 경기 중간에 교체 투입되는 등 경기 감각을 점차 끌어올리고 있다.

초반 서브 압박과 안정된 리시브·수비 조직력이 빛나면서 페퍼스는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확실히 달라진’ 페퍼스, 3연승에 대한 기대가 더해진다.

상대 GS칼텍스도 젊은 템포와 빠른 연결을 앞세워 상위권 경쟁에 합류했다.

지난 시즌 페퍼스와의 하위권 경쟁에서 가까스로 쫓겨는 피한 ‘약체’로 분류됐으나, ‘절대 강자 없

현대건설·흥국생명에 3-0 완승 새 얼굴 활약에 3승 1패 상승세 창단 첫 리그 2위 달라진 페퍼스 오늘 홈에서 GS칼텍스와 격돌

는’을 시즌 도로공사와 함께 초반 상위권 경쟁에 합류했다.

GS칼텍스의 외인 아포짓 스파이커 실바를 축으로 한 타점 높은 화력과 견고한 리시브 라인이 강점으로 꼽힌다.

1일 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 실바가 백어택 13개, 블로킹 3개, 서브 득점 3개 등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고, 레이나는 24점, 유서연과 오세연이 각각 13점과 11점을 쌓으며 뒷받침했다.

페퍼스의 3연승 관건은 홈 이점을 살려 초반 기세 싸움에서 먼저 주도권을 잡는 것이다.

승부처는 뚜렷하다.

첫째, ‘아포짓 스파이커’ 조이 vs 실바 간 화력 대결이다.

조이가 흥국생명전에서 보여준 결정력이 홈에서도 재현된다면, 박정아-이한비의 하이볼 처리 부담이 줄어들고 랠리당 득점 효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시마무라의 중앙 장악이다.

시마무라의 속공·블로킹이 살아나면 상대의 중앙 배분을 초반부터 끊어 랠리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서브로 시작되는 초반 압박이다.

두 번의 셋아웃 모두 강한 서브 타깃팅이 상대 세터를 흔들며 흐름을 앞당겼다. 같은 패턴으로 GS칼텍스의 리시브 라인을 묶어 중·장거리 랠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4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던 페퍼스는 직전 시즌 11승을 바탕으로 올 시즌 초반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1라운드에서만 벌써 3승을 거둔 페퍼스가 6일 승리로 3연승과 시즌 4승 사냥에 도전한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2일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2025~2026 V-리그 여자부 1라운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를 상대로 세트 스코어 3-0 셋아웃 승리를 거뒀다.

〈KOVO 제공〉

광주FC ‘시스템 축구’ 빛났다…또 하나의 역사 쓴다

ACLE 참가 등 역대급 일정…부상·이탈 악재에도 잔류 성공

12월 6일 전북과 코리아컵 결승…“골리앗과의 싸움 나선다”



광주FC의 잔류 비결 ‘시스템 축구’다.

광주는 지난 2일 제주SK FC와의 홈경기에서 2-0 승리를 거두고 K리그1 잔류를 확정했다. 간발의 차이로 6위 자리를 놓치면서 파이널 B에 편성됐지만, 스플릿라운드 2경기 만에 생존 경쟁을 끝냈다.

돌아보면 쉽지 않은 시즌이었다.

광주는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와 코리아컵 일정에 병행하면서 시즌을 보냈다.

기적 같은 뒤집기에 성공한 광주는 K리그 시도 민구단 첫 ACLE 8강행에 성공한 팀으로 시즌 중반 사우디아라비아를 다녀왔다. 여기에 코리아컵 일정도 소화했다.

역대급 일정 속 부상과 이탈 악재도 겹쳤다.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정호 황태자’ 정호연이 미국 도전을 위해 작별을 고했고, 주전 골백 김진호는 십자 인대 부상으로 이탈했다. 주전 골키퍼 김경민도 경기 도중 안와골절 부상을 당하면서

6월 한 달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중원에서 부지런한 활약으로 팀을 이끌었던 박태준은 지난 6월 군복무를 위해 김천상무로 떠났다. ‘에이스’ 아사니는 논란 끝에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이란 리그로 자리를 옮겼다.

이 모든 악재에도 광주는 사상 첫 코리아컵 결승을 앞두고 있고 조기 잔류도 확정했다.

잔류를 확정할 제주전 승리. 이 경기를 지휘한 이는 이정호 감독이 아니라 마철준 수석코치였다.

이정호 감독이 앞선 안양전에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면서 마철준 수석코치가 지휘봉을 든 것이다.

‘선수비 후공격’ 전략으로 제주를 봉쇄한 광주는 후반 33분 신창무를 앞세워 ‘0의 균형’을 깼다. 이후 후반 추가 시간에 나온 프리드손의 K리그 데뷔골까지 더해 광주는 2-0 승리를 완성했다.

전반전 수비 전술로 마음 급한 제주의 체력을 소진한 뒤 후반전 공세로 승리를 만들겠다는 전략이 통했다는 게 결승골 주인공 신창무의 설명이었다.

승장으로 인터뷰에 나선 마철준 수석코치도 시스

템을 통한 선수단 운영과 경쟁을 승리 비결로 언급했다. 마철준 수석코치는 지난 4월에도 퇴장 징계를 받은 이정호 감독을 대신해 경기를 지휘했고, 연승을 만들었다.

마철준 수석코치는 앞선 제주전이 끝난 뒤 “선수들이 감독님이 안 계시니까 조금 더 해보자는 생각으로 한 것 같다”며 “(제주가) 체력적으로 신체적인 조건이 좋다 보니 피지컬 훈련하고, 해딩 장점 살리기 위해서 해더 훈련했다. 슈팅 훈련 많이 해서 득점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승리 소감을 언급했다.

또 “항상 최선을 다해서 각자 할 일을 하다 보니까 좋은 모습이 나오는 것 같다. 감독님도 항상 일관된 모습을 보여준다”며 “마음을 놓으면 다음 경기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선수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광주 스타일을 이야기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최상의 전력을 만들고 있는 광주는 잔류 확정에도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12월 6일 최강 전력의 전북현대와의 코리아컵 결승이 남아있는 만큼 정규시즌 연승 행진으로 분위기를 살려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오는 8일 원정길에 올라 대구FC를 상대로 3연승을 노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버밍엄 백승호 2경기 연속 결승골

잉글랜드 챔피언십 밀월전 4-0 대승 견인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 그라운드를 누비는 미드필더 백승호(버밍엄 시티·사진)가 국가대표팀 합류를 앞두고 2경기 연속 결승골을 터트리며 포효했다.

백승호는 5일 영국 버밍엄 세인트앤드루스 경기장에서 열린 밀월과의 2025~2026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십 14라운드 홈경기에 선발 출전에 풀타임을 뛰면서 전반 28분 선제 결승골을 넣었다.

패트릭 로버츠가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린 뒤 백승호가 페널티지역 안 왼쪽에서 이어받아 왼발로 낮게 깔아 차 밀월 골문 오른쪽 구석에 꽂았다.

백승호가 올 시즌 리그 14경기(선발 13경기)에 모두 출전해 기록한 3호 골이다.

아울러 지난 2일 양민혁의 소속팀 포츠머스

의 13라운드 홈경기(4-0 승)에 이은 2경기 연속 골이다. 포츠머스전 선제 결승골도 백승호 몫이었다.

버밍엄은 밀월을 상대로도 백승호의 득점으로 기선 제압에 성공한 뒤 전반 45분 데마레이 그레이, 후반 4분 알렉스 코크레인, 후반 21분 제이스 스탠스필드의 추가 골을 묶어 2경기 연속 4-0으로 완승했다.

기분 좋은 2연승을 거둔 버밍엄은 승점 21(6승 3무 5패)를 쌓아 리그 24개 팀 중 9위로 올라섰다.

한편, 백승호는 9일 미들즈브러와 리그 원정경기를 치른 뒤 오는 14일 볼리비아(대전)에 이어 18일 가나(서울)와 친선경기를 갖는 국가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KIA, FA 자격 6명 ‘리그 최다’

박찬호·최형우·양현종 등

KBO가 2026년 FA(자유계약)자격 선수 명단을 5일 공시했다.

이번 시즌이 끝난 뒤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총

30명이다. KIA에서는 투수 양현종·조상우·이준영, 포수 한승택, 내야수 박찬호, 외야수 최형우 등 가장 많은 6명이 명단에 포함됐다.

KIA에 이어 삼성·KT·두산이 각각 4명, LG·한화·롯데가 3명씩, SSG·NC·키움이 1명씩이다.

FA 등급별로는 A 등급 7명, B 등급 13명, C 등

급 10명이다.

또 처음 FA 자격을 얻은 선수가 13명, 재자격 선수는 11명이다. 이미 자격을 얻었지만 FA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자격을 유지한 선수는 6명이다.

KIA에서는 박찬호와 조상우가 처음 FA 자격을 취득한 A등급의 선수다. 역시 처음 FA가 된 이준영과 한승택은 각각 B등급과 C등급, 최형우와 양현종은 세 번째 자격을 얻은 C등급이다.

2026년 FA 자격 선수는 공시 후 2일 이내인 7일까지 KBO에 FA 권리 행사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KBO는 권리를 행사한 선수들을 FA 승인 선수로 8일 공시할 예정이다.

FA 승인을 받은 선수는 9일부터 해의 구단을 포함해 모든 구단과 협상 테이블을 차릴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